

분산염료

94년 분산염료시장은 최근 2~3년동안 가장 큰 성장을 보인 한해로 생산은 물론 수출 및 내수시장이 모두 20%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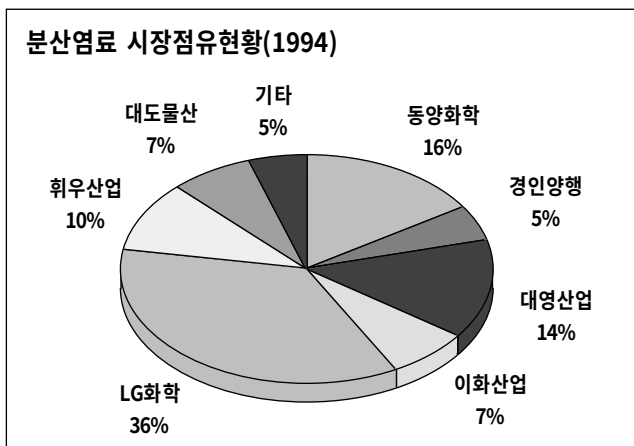
분산염료의 94년 생산량은 1만2420톤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했으며 내수는 1만8795톤으로 27.6% 신장했다.

또 수출이 눈에 띄게 늘어 2452톤을 기록해 47.8%의 증가율을 보였고 고급 분산염료의 수입도 8827톤으로 17.0% 증가했다.

이러한 분산염료의 성장은 94년 폴리에스터섬유의 중국특수로 인한 국내 화섬업계의 경기회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수출이 증가한 것은 분산염료의 주수출지역이 동남아 지역에서 그동안 일본산 분산염료가 강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엔화강세로 일본의 염료제품이 급격히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가격우위를 앞세운 국내 염료가 상당량 침투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는 전체 분산염료 수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 생산기준

현재 동남아 분산염료 시장을 놓고 한국·대만·중국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지역의 폴리에스터섬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산염료는 타 염료에 비해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전체 염료 수입량중 38.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분산염료 내수중에서는 47.0%로 매우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제품이 전체 수입 물량기준 40%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제품은 35%의 점유율을 보여 물

량면에서는 두 국가가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금액면에서는 일본이 약 38%, 중국이 10%전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은 고급 분산염료를, 중국은 저가 분산염료를 국내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우기 95년 상반기에는 평균 수입물량이 수출물량의 3배에 이르는 등 일부 그레이드를 제외하고 수입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분산염료를 공급하고 있는 LG화학은 94년 4420톤을 생산해 전체 국내 생산량 중 35.6%의 비중을 차지해 절대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동양화학 2030톤 16.3%, 대영산업 1730톤 13.9%, 휘우산업 1253톤 10.1% 등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기업 외에 경인양행과 경인합성이 90년초 신규진입이후 각각 4.8%, 2.7%등 총 7.5%의 점유율을 보임에 따라 분산염료 생산라인을 연산 3000톤규모로 증설했으며, 이화산업 및 대흥산업도 국내 분산염료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산염료의 기초원료인 아닐린유도체 가격이 94년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우더타입의 경우 Kg당 1만~2만원선이며 액상형은 3000~60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분산염료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원료가 상승비를 분산염료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실속없는 외형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분산염료 시장은 꾸준한 수출증가 및 국내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LG화학은 95년 3/4분기 완공 목표로 생산능력을 4300톤에서 5500톤으로 증설하고 있고, 오염산업도 연산 1800톤 규모로 신규 참여하는 등 이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96 화학연감 >